

SK E&S, 美 업체와 국내 수소생산기지 건립에 1조 투자

플러그파워와 '기가팩토리' 건설
합작법인 SK 플러그하이버스 통해
SKE&S 5100억, 플러그 4900억 부담
연구개발센터·충전소 구축에 투자

SK E&S가 미국의 대표 수소기업 플러그파워(Plug Power)와 함께 수소설비 생산기지 '기가팩토리(Giga-factory)' 건설 등 국내 수소산업에 총 1조원을 투자한다.

SK E&S는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투자신고식' 행사에서 플러그와 이 같은 내용의 합작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플러그를 포함해 한국 투자를 결정한 6개 미국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SK E&S와 플러그는 지난해 설립한 합작법인 'SK 플러그하이버스'(SK Plug Hyverse)를 통해 총 1조원을 국내

수소산업에 투자한다. 합작법인 지분율에 따라 SK E&S가 5100억원, 플러그가 4900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정부의 적극적 육성 정책에 기반한 한국 수소 시장의 잠재력과 SK E&S의 차별적 경쟁력이 양사 간 협업을 가능케 했다는 평가다.

이번 합작투자는 수소분야에서 이뤄지는 한-미 기업 간 대표적 비즈니스 협력 모델로 평가받는다. 플러그가 보유한 수소분야 첨단 기술력과 SK E&S가 오랜 시간 축적해온 에너지 생산, 유통, 판매 역량이 만나 글로벌 수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SK E&S 측은 "국내 수소산업을 향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키우는 등 정부의 국정과제인 '수소산업 1등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 수소설비 핵심 기지 '기가팩토리' 구축

양사의 이번 투자금은 국내에 건설되는 '수소기술 R&D센터 및 기가팩토리' 구축에 투입된다. 기가팩토리는 차



'보령 블루수소 생산기지' 예상 조감도. /SK E&S

량용·발전용 수소연료전지와 수전해설비 등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수소 핵심설비 생산기지'로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제품 양산을 본격화해 국내 및 아시아 시장에 공급한다. SK E&S는 "이 곳에서 생산되는 수소연료전지와 수전해설비에는 플러그의 핵심기술이 적용돼 수소분야 첨단기술의 국산화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기가팩토리에서 만들어지는 수

소연료전지는 SK E&S의 '보령 블루수소 생산기지'에서 2026년부터 생산될 블루수소를 연료로 하는 청정수소 발전 사업에 활용, 청정수소 생태계 확대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SK 플러그 하이버스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필수 설비인 수전해설비를 생산·공급해 국내 그린수소 시대를 앞당기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설 계획이다.

◆국내 액화충전소 구축·운영... '수소경제' 가시화

SK 플러그 하이버스는 국내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 운영 분야에도 투자한다. 전국 주요 지역에 액화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원활한 액화수소 공급과 인프라 조성을 통해 수소 모빌리티 확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와 비교해 대량 운송과 빠른 충전이 가능해 수소 유통·저장 방식의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SK E&S는 올해 말부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에서 액화수소 연 3만톤을 생산하고, 2026년부터는 보령 블루수소

생산기지에서 연 5만톤을 추가 공급하게 된다. SK E&S가 생산한 액화수소는 SK 플러그 하이버스가 구축·운영하는 액화수소 충전소를 통해 수소버스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의 연료로 공급돼 '수소경제' 현실화를 앞당길 예정이다.

조지 맥나미 플러그 이사회 의장은 "한국은 수소산업 선도 국가로, 수소를 국정과제로 육성 중인 한국 정부의 선구안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SK 플러그 하이버스를 통해 가까운 미래에 한국은 아시아 수소 시장의 수출 허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사장은 "플러그와의 이번 공동 투자는 한국 수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선진 기술을 적용한 보령 블루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를 조기 조성하고, 한국이 전세계 수소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더 기아 EV9 기본모델.

기아, 대형 전기 SUV 'EV9' 사전계약 돌입

국내 최초 3열 대형 전동화 스포츠차

기아가 '더 기아 EV9(이하 EV9)'의 사전 계약을 3일부터 시작한다.

EV9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기반한 두 번째 모델로, 기아 라인업 상 새로운 플래그십이자 전에 없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가장 혁신적인 국내 최초 3열 대형 전동화 스포츠 유틸리티차(SUV)다.

EV9는 웅장함이 돋보이는 외관과 새로운 차량 경험을 선사할 실내 공간을 갖췄다.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가 적용된 전면부는 '디지털 패턴 라이팅 그릴'과 '스몰 큐브 프로젝트 LED 헤드램프', '스타맵 LED DRL(주간주행등)' 등 깔끔한 차체 면과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조명으로 미래 지향적 느낌을 구현했다. 이와 더불어 차체 전반에서 느껴지는

우아한 볼륨감과 끈기 짙은 선으로 구현한 다각형의 대비를 통해 고급스럽고 단단한 이미지를 연출하며 정통 SUV로서의 웅장한 이미지를 동시에 담아냈다.

실내는 편평한 바닥과 긴 휠베이스 등 E-GMP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설계한 넓은 공간에 간결하고 정제된 디자인을 더해 탁 트인 개방감과 공간감을 극대화했다. 또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운전경험을 선사할 '파노라마믹 와이드 디스플레이', '하드 타입 터치버튼', '스티어링 휠 엠블럼 라이트'와 다양한 상황에서 공간 활용성을 높여줄 '딜렉션 '스위블' 등 2열 시트 사양도 갖췄다.

/양성운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제네시스, '인천 에어포트 서비스' 출시

제네시스가 2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해 다양한 차량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인천 에어포트 서비스'를 출시했다.

'에어포트 서비스'란 제네시스 고객이 공항을 이용할 경우 차량을 전용 실내주차장에 보관해주고 차량점검 등 정

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2020년 3월 선보인 김포 에어포트 서비스의 높은 고객 만족도와 선호도를 기반으로 인천공항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대했다. 제네시스 홈투홈 서비스 쿠폰을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양성운 기자

삼성중, 'FLNG' 빠르고 저렴하게 짓는다

(바다위LNG 공장)

美 'OTC 2023'서 DNV선급 인증
차세대 생산설비 개발 성공

삼성중공업이 '바다 위 액화천연가스(LNG) 기지'로 불리는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의 차세대 모델 개발에 성공하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재입증했다. 사용을 표준화해 고객 요구에 따라 용량을 쉽게 변경하도록 했으며 납기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이 핵심이다.

삼성중공업은 1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해양기술 박람회(OTC 2023)에서 노르웨이 DNV선급으로부터 FLNG 부유체 독자 모델(MLF-N)에 대한 기본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MLF-N은 최근 주요 LNG 생산국의 LNG 수출 증가 영향으로 육상 플랜트에 비해 납기가 빠르고 경제적인 FLNG 모델을 찾는 시장 상황에 맞춰 개발한 삼성중공업의 전략 제품이다.

삼성중공업의 MLF-N은 선형과 사양을 표준화한 것이 특징이다. LNG 화물창 형상과 이를 둘러싼 선체를 규격화



삼성중공업의 차세대 FLNG 독자모델인 MLF-N의 모습.

해 화물창 용량을 기본 18만m³에서 최대 24만5000m³까지 발주처가 필요한 만큼 손쉽게 늘릴 수 있다. 동시에 천연가스 액화 모듈 같은 약 5만톤 중량의 상부 플랜트 설비를 밑에서 떠받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구조로 설계됐다. 선체에 탑재되는 주요 장비의 최적 사양을 표준화해 엔지니어링 기간도 대폭 줄였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수주한 FLNG에 MLF-N의 일부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다수 해외 가스전 개발사업 프로젝트 수주전에 참여해 MLF-N 영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해기 삼성중공업 기술개발본부장(부사장)은 "MLF-N은 LNG 개발을

쉽고 간단하고 빠르게 수행하길 원하는 발주사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라며 "고객지향적 기술 혁신을 통해 FLNG 기술 리더십을 계속해서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FLNG는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채굴한 뒤 이를 정제하고 LNG로 액화해 저장 및 하역까지 할 수 있는 복합 해양플랜트다. 최근 LNG 수요가 늘면서 해상기지 역할을 하는 FLNG 주문도 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전 세계 FLNG 발주 5척 중 4척을 수주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임직원들과 '위기 가정' 아동 20명 집중 후원

나눔 키오스크 활용 기부 활성화

삼성전자가 가정의 달을 맞아 임직원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한다.

삼성전자는 2일부터 '나눔의 달'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위기 가정 아동 20명을 집중 후원할 계획이다. 나눔의 달 캠페인은 삼성 임직원의 '일상의 기부' 플랫폼이다. 나눔 키오스크를 활용한 기부를 활성화하고 개인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데에 기여

하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이 즐겁게 기부할 수 있도록 '나눔 굿즈'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5월 중으로 나눔 키오스크를 찾지 않고 사무실에서도 손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사내 메신저를 활용한 '온라인 나눔 키오스크'를 특별 개설했다. 이번달 후원 아동은 희귀난치병, 중증장애를 앓고 있거나 미혼모·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중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선정했다.

첫날 사연을 소개하게된 김빛나(가명) 어린이는 염색제 돌연변이로 인해 손, 발 등의 신체 결함과 내장 기관 이상이 유발되는 희귀난치병 '팔리스터-홀증후군'을 앓고 있다. 음식을 먹을 수 없어 코에 줄을 연결해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다. 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라 정부 지원을 받아 치료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김재용 기자 juk@